

인간과 하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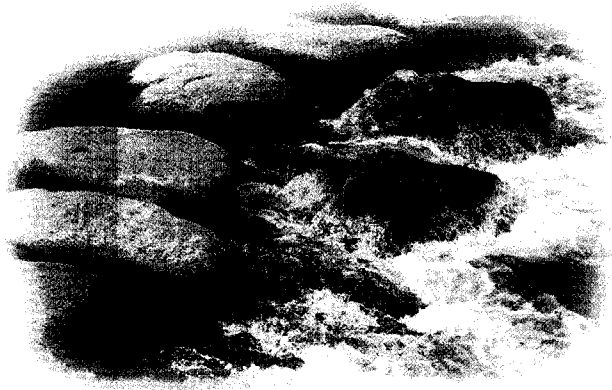
River & Culture

제1회 하천문학상
[일반부 장려상(동시)]

여름 햇살 남대희作

개울물
아랫마을
마실가는데
여름 햇살
아장아장
따라나서다.

징검다리
풀짝
건너뛰려다
개울물에
풍당
빠져 버렸어.



쪼르륵
거품 내며
잠수하다가
소금쟁이
발목 잡고
기어 나와요.

보글보글
물거품 터질 때마다
톡톡톡톡
튀어나온
싱싱한 햇살.

송사리 떼 화들짝
산그늘 숨고
개울물 가을가을
터진 웃음보. ●

[중고등부 장려상(시)]

강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송승이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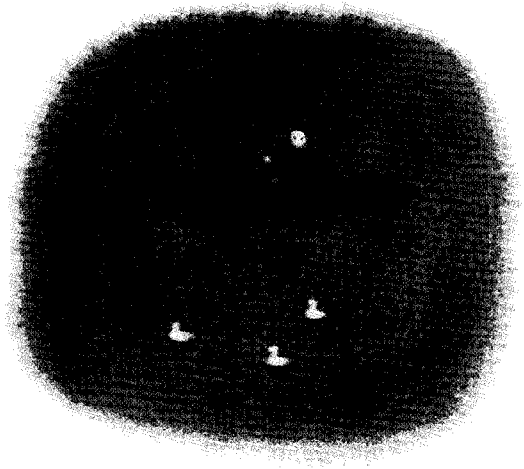
강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짓궂고 모질게 부는 비바람도 다 포용하는 강이 되어라.
 어느 날엔가 누구에겐가 상처 받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강이 되어라.

강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모든 걸 다 내어주고도 무언가 더 주려하는 강이 되어라.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게
 더 많이 주지 못해 안타까워 할 줄 아는 강이 되어라.

강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앞으로 올곧게 나아가지만은 않는 여유로운 강이 되어라.
 앞으로 사랑하게 될 존재를 위하여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휘감고 돌아 흘러가는 강이 되어라.

강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흐르며 만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며,
 스쳐간 인연을 가슴 속에 간직할 줄 아는
 강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나아가기 위해 흐르기 보다는
 매마른 이들의 목을 축이기 위해 흐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강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



제1회 하천문학상

[초등부 장려상(수필)]

함께 지켜요, 소중한 우리의 천

박인준 작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에 있는 작은 도시 안성이다. 우리 학교 옆으로는 흐르는 하천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몇 년 전 만 해도 물고기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없었고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와 쓰레기로 가득 뒤덮혀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에서 여러 활동을 거치면서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져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께서는 6학년 이 된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시려는지

“인준아, 너 환경봉사단이라는 것 해보지 않을래?”

“네? 그게 뭐예요?”

그러자 엄마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다.

“환경봉사단은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의 환경봉사활동을 해나가는데 너희들의 손길이 필요하지.”

“그럼, 한번 해 볼래요.”

엄마와 말씀을 나누는 뒤 나는 우체국으로 달려가 입단 원서를 써 보냈다. 그런데 며칠 후 내 이메일을 통해 가입이 승인되었다는 편지가 도착했다. 난 제 5기 입단식을 마치고 여름 방학을 하기 전에 처음으로 ‘하천탐사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는 가기 전에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일까?’ 궁금했다. 드디어 약속시간에 딱 맞춰서 수원천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많았다. 어른들도 있었지만 나 같은 학생들도 많았다. 몇 분후 인원 점검을 한 뒤 수원천 북수문에서 하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우선 수원천은 자연형 하천이라고 인공적으로 변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저수로(물길)가 직선이지 않고 구불구불하면 넓이와 깊이 등이 일정하지 않다고 했다. 수원천

의 이런 지형은 여러 수중생물의 보금자리가 되어 하루살이, 유충, 모기, 플라나리아, 다슬기, 거머리 등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하천은 여러 기능을 한다고 한다. 식수로도 쓸 수가 있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오는 기름기, 세제, 샴푸 등 생활하수의 오염도 많이 차지하므로 가정에서도 지켜야 할일이 아주 많았다. 하천이 살아야 먹이사슬도 끊어지지 않아 생태계의 중요 연결고리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주요 설명이 끝나자 본격적으로 하천탐사를 시작했다. 바지를 걷고 나는 처음으로 하천에 발을 내딛었다. 난 하천에서 살고 있는 플라나리아도 보고 징그러운 거머리와 성충보다 유충이 더 큰 하루살이유충도 보았다. 정말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하천의 생태계에 대하여 자세히 관찰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난 호기심으로 플라나리아를 잘라보니 정말 재생되었다. 하천의 돌 위 등을 기어 다니는 생물인데 몸을 잘랐을 때 머리가 붙어 있는 쪽에서는 꼬리가 재생되며, 꼬리가 달려 있는 쪽에서는 머리가 재생되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말로만 듣다가 진짜 해보니가 신기하기까지 했다. 우리가 이렇게 수중의 생태관찰을 한 뒤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일이 시작되었다. 오늘 처음 만난 아이들지만 나를 비롯하여 초등학교 5학년 2명이 나와 같은 조가 되었다. 3인 1조로 나누어져 집게 하나씩을 주었는데 우리 조 중 한 아이가 집게로 쓰레기를 잡으면 우리들은 봉투 안에 넣는 것이었다.

강변의 쓰레기는 산책로 외곽에서 자란 수풀 틈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쓰레기의 종류와 양은 어마어마했다. 담배꽂초

에서부터 떡볶이가 조금 남은 종이컵, 마른개똥, 맥주 캔, 비닐봉지 등 쓰레기들이 널그려져 있었다.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줍는 일이지만 살짝 기분이 언짢았다. 줍는 내내 ‘이렇게 사람들이 나 몰라라 쓰레기를 버리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강변은 점점 깨끗해져갔다.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우리 조는 지도교사 분들께 가장 열심히 쓰레기를 주운 조라고 칭찬을 들었다.

얼떨결에 만나서 환경봉사 활동을 했지만 환경을 사랑하

는 마음이 누구나 있었기 때문에 호흡을 맞춰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예상보다 우리의 하천탐사는 빨리 끝났다. 난 이번 계기로 수중생물들이 살아가려면 오염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환경에 대한 공부와 봉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지만 앞으로 천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봉사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 🐼

